성경적 투자관과 대학생들의 주식투자에 대한 태도와 행복도 분석

박정윤* , 옥영경**

I. 서론

최근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회가 주식, 펀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440명의 목회자 중 82.27%가 '주식이나 펀드, 부동산은 투기적인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나 투자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대학에서 전공과목으로 투자론을 개설하고, 교양과목으로 증권투자론을 개설할 뿐 아니라, 대부분의 증권회사에서 모의투자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증권회사와 경제 일간지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대회를 매년 개최할 만큼 현재 대학생들의 투자에 대한 관심은 높다. 그러나 개인 투자자 100명 중에서 90명 정도는 투자손실을 경험하고 있기에 올바른 투자관을 가지고 투자에 임할 필요가 있다(조선일보, 2000. 10. 17). 박정윤(2008)에 따르면, 투자론에서 배운 지식만으로는 투자에 대해 온전히 배울 수 없으므로 성경을 통해 투자원리를 이해하고, 그 원리를 실제 투자에 적용했을 때 투자성과도 높일 수 있다.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중 하나인 '행복하게 살고싶다'는 마음은 성별, 국적, 종교, 경제적 환경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치학자 로널드 잉글하트의 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행복지수는 5점 만점에 1점이 조금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가 넘는 나라 중에서 제일 행복하지 못한 나라인 것이다(폴리뉴스, 2012. 04. 19).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행복지수에서 역시 한국은 34개 회원국 중 26위를 차지할 정도로 불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리나라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21.5명으로 OECD 평균(11.7명)의 두 배를 차지한다(etnews, 2012. 02. 22). 또한 최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행복지수 조사에 따르면, 대학생들의 행복도는 평균 71.6점으로 직업의 안정성과 관련이 있었고, 가구소득과의 관련성에서는 행복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돈이 필요하지만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행복지수의 상승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다(경향신문, 2011. 12. 28).

그렇다면 행복을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일까? 행복에 관한 초기의 연구에서는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사회경제적 요인으로는 성별이나 지능과 상관없이 젊고, 건강하고, 교육수준과 소득이 높고, 외향적이고, 낙천적이고, 걱정이 없고, 종교가 있고, 결혼한 사람이며, 자아존중감과 직업의욕이 높고, 적당한 정도의 포부를 가진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심리적 요인으로는 낙관주의, 대인관계, 건강상태, 자아존중감, 정신건강상태 등이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말옥, 2011). 그러나 만족감, 안녕감으로 측정되는 행복감의 기준은 개인에 따라 다르고 어떤 마음상태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학자들의 연구 결과와는 달리, 한국인들은

* 영남대학교 상경대학 경영학부 교수, jypark@yumail.ac.kr
** 영남대학교 대학원, ok860208@ynu.ac.kr

행복이 삶이 마음상태가 아닌 외적 조건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믿는 것처럼 보인다(구재선, 서은국, 2011).

또한 종교는 세상과 자신을 이해하는 방식을 결정하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태도와 행복지수가 종교적 가치관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박준성, 정태연(2011)에 의하면 종교를 가진 사람이 종교가 없는 사람보다 더 행복하다고 인식한다. 특히 개신교인, 천주교인, 불교인 중에서 개신교인이 가장 행복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의 목적은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성경적 투자관을 정리하고, 대학생들의 주식투자에 대한 태도를 분석하여 목회자들의 투자 태도와 비교하는 데 있다. 두 번째는 성경적 행복론과 긍정심리학의 행복론을 정리하고, 현재 대학생들의 행복지수를 알아보고, 행복에 영향을 주는 인구통계학적변수를 밝혀내는 것이다.

본 논문의 전개순서는 다음과 같다. 서론에 이어 2부에서는 성경적 투자관을 확인하고, 3부에서는 성경의 행복론과 긍정심리학의 행복론을 살펴본다. 4부에서는 대학생들의 투자에 대한 태도와 행복지수를 알아보기 위한 설문조사의 방법론과 기초통계량을 제시하고, 변수를 설명한다. 5부에서는 설문 결과를 분석하여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6부에서는 논문을 요약하고 결론을 맺는다.

Ⅱ. 성경적 투자관

성경에서 재물 관리에 대해 언급한 구절이 약 700절이나 될 정도로 재물 관리는 성경에서 가장 많이 다뤄지는 주제 중 하나이다. 그러나 크리스천들이 이를 올바로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다.

성경이 쓰여진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봤을 때, 현대의 투자자산이나 투자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많지 않으나, 마태복음의 달란트 비유와 누가복음의 열 므나 비유를 통해 성경이 투자를 금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히려 성경은 투자와 투자수익에 대해 긍정적인 관점을 취하고 있다. 또한 이 비유에서 알 수 있듯이 돈을 비롯한 자원에 대해 성경에서 소개하는 청지기의 태도는 크게 세 가지이다(Stevens, 1997; 박정윤, 2011).

첫 번째는 낭비 또는 허비하는 태도이다. 현실에서는 낭비를 투자로 보지 않지만, 성경에서는 낭비도 투자의 하나로 보고 있다. 그 예는 누가복음 15장의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비유의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 중 유산으로 받은 재물을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낭비하고 만다. 또 누가복음 16장의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에 등장하는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를 낭비함으로 청지기직을 빼앗기고 만다.

두 번째는 자원을 활용하지 않고 사장하는 태도이다. 마태복음 25장 24절- 25절과 누가복음 19장 21절의 비유에 등장하는 한 달란트 받은 종과 한 므나 받은 종을 통해 알 수 있다. 이들은 그들의 주인인 하나님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주인이 맡긴 것을 잃어버릴까 염려하여 땅에 감추어 두거나 수건에 싸둔 이들의 행동은 주인의 뜻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들의 신중한 태도를 칭찬하지 않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칭하며 그들이 가진 것을 빼앗아 그것을 각각 다섯 달란트 받은 자와 열 므나 남긴 종에게 준 것에서 알 수 있다. 얼핏 보면 주인의 이같은 지시는 과한 처벌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이 종들의 행동은 주인으로부터 받은 것을 사장시키는 것으로써 주인을 잘 모르는 것이었다.

세 번째는 투자하는 태도이다. 누가복음의 열 므나 비유에서 열 종이 동일하게 한 므나씩을 받았지만, 어떤 종은 그것을 가지고 장사하여 각각 다섯 배와 열 배의 수익을 남겼다. 또한 마태복음의 달란트 비유에서 두 달란트와 다섯 달란트를 받은 종도 받은 것을 이용하여 각각 두 달란트와 다섯 달란트를 더 남겼다. 이것이 투자에 대한 청지기의 바른 자세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맡긴 자원을 낭비하거나 사장하지 않고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적극적으로 투자하기를 원하신다. 주인의 뜻을 따라 적극적으로 투자하여 성과를 낸 종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표현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종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표현했으며, 그들에게 처음 맡겼던 원금도 다시 빼앗은 것에서 알 수 있다.

Ⅲ. 성경의 행복론과 긍정심리학의 행복론

1. 성경의 행복론

박정윤(2011)은 다윗의 행복론, 예수 그리스도의 행복론, 그리고 바울의 행복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먼저 다윗의 행복론은 시편 32편 1절-2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에 따르면 사람이 여호와의 율법을 다 지켜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여호와께서 자신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의롭다 해주실 때 비로소 의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은 의인에게만 행복이 있는 것이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행복론은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을 통해 알 수 있다. 마태복음 5장 3절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라고 말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영적인 극빈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리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를 믿는 모든 자를 살리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상태를 말한다. 우리는 영적으로 가난해야 한다. 그래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는 천국을 소유할 특권이 주어진다. 은혜의 왕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김한경, 2012).

세 번째는 바울의 행복론이다. 바울은 다윗의 행복론과 예수 그리스도의 행복론을 가장 잘 이해하고 정리한 사람으로, 로마서 4장 6절-8절과 로마서 8장 1절-2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 말씀에 따르면 바울은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은 자가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다.

2. 긍정심리학의 행복론

긍정심리학자들은 개인이 행복 판단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 행복은 주관적 보고에 의해 측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행복에 대해 과학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행복을 추상적인 개념이 아닌 구체적인 개념으로 정의하기 위해 노력한다.

행복에 대한 철학적 주장은 쾌락주의적 입장과 자기실현적 입장으로 구분된다. 행복을 '주관적 안녕', '삶의 만족도', '삶의 질'이라는 용어로 표현하는 쾌락주의적 입장은 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만족스럽게 느끼는 주관적인 상태를 행복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쾌락주의적 입장을 지지하는 심리학자들은 행복감, 몰입 경험, 긍정 정서 등 개인의 긍정적인 주관적 경험들에 초점을 맞춘다. 주관적 안녕은 정서적 요소와 인지적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Diener, 1984, 1994). 정서적 요소는 긍정 정서와 부정 정서를 말하는데, 긍정 정서를 자주 경험하고 부정 정서를 덜 경험할수록 주관적 안녕의 수준이 높다고 본다. 인지적 요소는 삶의 만족도를 말하는 것으로써, 자신의 삶을 전체적으로 혹은 영역별로 평가하여 그 결과가 긍정적일 때 만족감을 느끼게 된다고 본다.

주관적 안녕을 측정하는 도구는 대부분 자기보고형 평정 척도에 의해서 평가되는데, 이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 중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은 '삶의 만족도 척도(SWLS: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Diener, Emmons, Larsen & Griffin, 1985)이다. 그리고 Argyle(2001)에 의해 개발된 옥스퍼드 행복 척도-개정판(The Revised Oxford Happiness Scale)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권석만, 2008, 52).

자기실현적 입장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 가능성을 충분히 발현하여, 자신의 인생의 중요한 부분에서 의미 있는 삶을 구현하는 것을 행복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자기실현적 입장을 지지하는 심리학자들은 지혜, 지식, 자애, 용기, 창의성, 관용, 절제, 정의, 영성 등 인간의 성격적 강점과 덕목에 초점을 맞춘다. Seligman(2002)은 개인이 지닌 대표 강점을 찾고 계발하여, 일상생활에서 잘 발휘하며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주장한다.

Ⅳ. 대학생들의 투자에 대한 태도와 행복지수

1. 연구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들의 투자태도를 분석하여, 이 결과가 성경적 투자관과 일치하는지 확인해 보고, 목회자의 태도와 비교하는 것이다. 또한 대학생들의 행복지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밝혀내는 데 있다.

연구를 위해 영남대학교에서 2012년 1학기에 투자론 과목을 수강하고 있는 대학생 186명을 대상으로 2012년 4월 16일과 4월 18일 양일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186부의 설문지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27부를 제외한 총 159부의 설문지가 분석의 대상이다. 통계분석은 SPSS 18.0을 사용하였다.

2. 연구대상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 학년별로는 3학년이 117명(73%)으로 가장 많았고, 4학년이 40명(25%), 2학년과 1학년이 각각 1명으로 나타났다. 전공 계열별 학생 수는 상경계열 전공이 141명으로 88%, 기타 전공이 18명으로 11%였다. 기타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일반적인 특성

특성 (N=159)		빈도(명)	비율(%)
학년	1학년	1	0
	2학년	1	0
	3학년	117	73.5
	4학년	40	25.1
성별	남	89	55.9
	여	70	44.0
국적	대한민국	145	91.1
	기타	14	8.8
전공계열	상경계열	141	88.6
	기타	18	11.3
종교	기독교	22	13.8
	가톨릭교	9	5.6
	불교	27	16.9
	이슬람교	0	0
	기타	101	63.5
장래 진로 목표	금융회사	69	43.3
	기타	90	56.6
금융권 종사 가족 유무	유	25	15.7
	무	134	84.2
가족 월평균 소득	150만원 미만	19	8.1
	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53	33.9
	300만원 이상~450만원 미만	44	27
	450만원 이상~600만원 미만	14	15
	600만원 이상	8	12.5
용돈 유무	유	133	83.6
	무	26	16.3
용돈 규모	20만원 미만	19	14.2
	20만원 이상~30만원 미만	53	39.8
	30만원 이상~40만원 미만	44	33
	50만원 이상~60만원 미만	14	10.5
	60만원 이상	8	6
아르바이트	예	42	26.4
	아니오	116	72.9

아르바이트 수입 규모	20만원 미만	9	21.4
	20만원 이상~30만원 미만	7	16.6
	30만원 이상~40만원 미만	14	33.3
	40만원 이상~60만원 미만	7	16.6
	60만원 이상	5	11.9

3. 변수의 측정

(1) 투자에 대한 태도 측정

본 연구의 첫 번째 목적은 대학생들의 주식투자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고 목회자의 주식투자에 대한 태도와 차이를 발견하는 데 있다. 또한 학생들의 종교와 성별, 국적, 소비습관에 따라 주식투자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고자 한다. 투자와 관련된 문항은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각 변수의 구체적인 항목은 <표2>와 같다. 그리고 소비습관과 인구통계학적 변수는 각각 7문항, 12문항이다.

<표2> 투자와 관련된 설문항목

번호	설문항목
1	귀하는 실제 주식 투자 경험이 있습니까?
2	처음 주식 투자를 시작한 계기는 무엇입니까?
3	귀하의 목표 수익률은 몇 퍼센트입니까?
4	귀하의 실제 투자 수익률은 몇 퍼센트입니까?
5	처음 주식 투자를 시작한 계기와 목표 수익률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6	귀하는 모의투자 경험이 있습니까?
7	처음 모의투자를 시작한 계기는 무엇입니까?
8	귀하의 목표 수익률은 몇 퍼센트입니까?
9	귀하의 실제 모의투자 수익률은 몇 퍼센트입니까?
10	귀하가 가장 선호하는 투자 자산은 무엇입니까?
11	귀하의 가정에서 가장 선호하는 투자 자산은 무엇입니까?
12	귀하의 용돈이나 아르바이트 수입을 주식, 펀드 등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행복지수 측정

행복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는 행복에 대한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현재 대부분의 긍정 심리학자들은 행복은 주관적 현상이기 때문에 주관적인 보고에 의해 측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행복지수는 주관적 안녕의 측정을 위해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척도인 '삶의 만족도 척도(SWLS: Satisfaction With Life Scale)'를 이용하였다(Diener, Emmons, Larsen & Griffin, 1985). 이 척도는 간단한 검사이지만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은 것으로 입증되어있다. 삶의 만족도 척도는 총 다섯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에 대해서 1점(전혀 아니다)에서 7점(매우 그렇다)까지의 리커트 척도

를 이용한다. 응답의 범위는 5~3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행복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31~35점=매우 만족함, 26~30점=상당히 만족함, 21~25점=약간 만족함, 20점=중립상태임, 15~19점=약간 불만족함, 10~14점=상당히 불만족함, 5~9점=매우 불만족함). 각 변수의 구체적인 항목은 <표3>과 같다(권석만, 2008, 52).

<표3> 삶의 만족도 척도

	전혀 아니다	아니다	약간 아니다	중간 이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전반적으로 나의 인생은 내가 이상적으로 여기는 모습에 가깝다.							
2. 내 인생의 여건은 아주 좋은 편이다.							
3. 나는 나의 삶에 만족한다.							
4. 지금까지 나는 내 인생에서 원하는 중요한 것들을 이루어냈다.							
5. 다시 태어난다 해도, 나는 지금처럼 살아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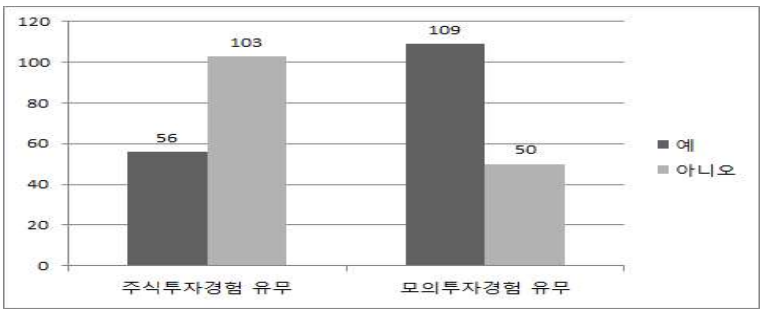
V. 분석 결과

1. 대학생들의 투자에 대한 태도

(1) 투자 경험 분석

투자경험은 실제 주식투자 경험과 모의투자 경험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그림1]과 같이 실제 주식투자경험이 있는 학생은 56명(35%), 실제 주식투자 경험이 없는 학생은 103명(64%)로 나타났다. 모의투자 경험이 있는 학생은 109명(68%)이며, 모의투자 경험이 없는 학생은 50명(31%)로 나타나 실제 주식투자보다 실제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모의투자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제 주식투자와 모의투자를 모두 경험해 본 학생은 29명(18%)이고, 둘 다 경험해보지 않은 학생은 23명(14%)으로 나타나 실제 주식투자와 모의투자 중 하나라도 경험한 학생이 전체 159명 중 136명으로 전체의 8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것을 통해 투자에 대한 대학생들의 관심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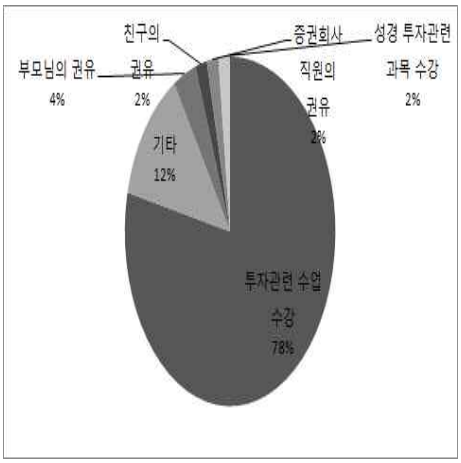
[그림1] 투자경험 유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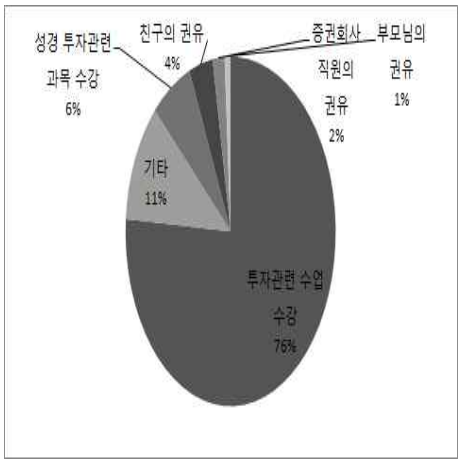
(2)투자를 시작하게 된 계기

처음으로 투자를 시작하게 된 계기를 묻는 질문에 실제 주식투자 경험이 있는 학생 56명 중 78%가 '투자와 관련된 일반 수업 수강'이라고 답했고, 기타 12%, 성경과 관련된 투자 과목 수강, 부모님의 권유, 친구의 권유, 증권회사 직원의 권유의 순으로 나타났다. 모의투자를 시작한 계기 역시 모의 투자 경험이 있는 109명의 학생 중 '투자와 관련된 일반 수업 수강'에 응답한 비율이 76%로 가장 높았고, 기타 11%, 성경과 관련된 투자 과목 수강이 6%, 친구의 권유, 증권회사 직원의 권유, 부모님의 권유 순으로 나타났다. 성경과 관련된 투자과목 수강을 계기로 투자를 시작한 학생은 실제 주식투자와 모의투자를 합하여 8명으로 나타났다.

[그림2]실제 주식투자를 시작하게 된 계기



[그림3] 모의투자를 시작하게 된 계기



(3) 목표수익률

목표수익률을 묻는 질문에 실제 주식투자 경험이 있는 학생 56명 중 24명(42%)이 10% 이상~20% 미만으로 응답했고, 5% 이상~10% 미만이 9명(16%), 20% 이상~30% 미만이 8명(14%), 5% 미만이 6명(10%), 30% 이상 ~ 40% 미만이 3명(5.3%)로 나타났으며, 각 6명의 학생은 40% 이상~50% 미만, 50% 이상~100% 미만이라고 응답했으며, 100% 이상은 2명의 학생이 응답하였다.

모의투자 경험이 있는 109명의 학생 가운데 5% 이상~10% 미만에 응답한 학생이 33명(30%)으로 가

장 많았고, 10% 이상~20% 미만이 31명(28%), 20% 이상~30% 미만이 24명(22%)로 나타났다. 5% 미만은 5명(4.5%)로 나타났으며, 40% 이상~40% 미만, 40% 이상~50% 미만, 50% 이상~100% 미만, 100% 이상은 각 4명(3.6%)의 학생이 응답하였다. 직접투자를 하는 개인투자자의 연간 적정 기대수익률 19.4%와 비슷한 수치이다(뉴시스, 2012. 03. 07).

(4) 실제투자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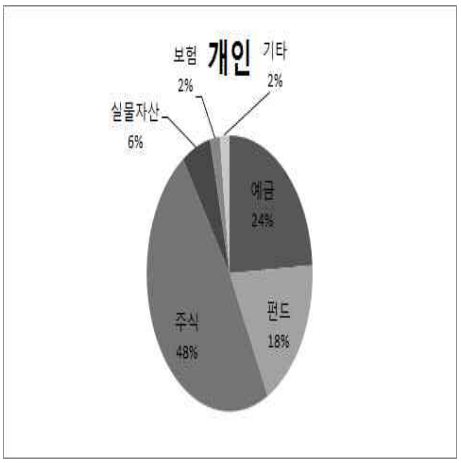
실제 주식투자 경험이 있는 학생 56명 중 25명이 실제 주식투자수익률이 5% 미만이라고 응답한 빈도가 가장 높았고, 23명이 5% 이상~10% 미만, 4명이 10% 이상~20% 미만, 2명이 20% 이상~30% 미만이라고 응답했으며, 50% 이상~100% 미만, 100% 이상에도 각 한 명이 응답했다. 이것은 실제 주식투자 경험이 있는 학생의 57%가 5% 이상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2011년 발표한 개인투자자의 주식 투자 평균 수익률 -5.2%와 전체 투자자 중 60.1%가 투자손실을 기록한 결과와는 차이가 있다(한국경제TV, 2012. 03. 07).

모의투자수익률에 대해서는 모의투자 경험이 있는 학생 109명 중 108명의 학생이 응답했으며, 5% 미만이 59명으로 가장 많았고, 5% 이상~10% 미만이 27명, 10% 이상~20% 미만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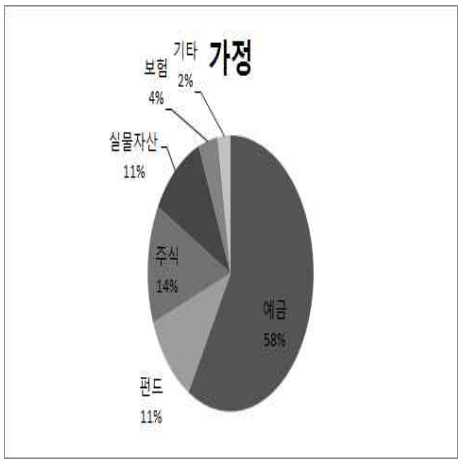
(5) 가장 선호하는 투자자산

가장 선호하는 투자자산은 주식(47%), 예금(23%), 펀드(18%), 실물자산(5%), 보험(1.8%), 기타(1.8%)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이며,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약화되는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서울경제, 2012.03.14). 그러나 가정에서 가장 선호하는 투자자산은 예금(58%), 주식(13%), 펀드(10%), 실물자산(10%), 보험(6%), 기타(4%)로 안정적인 예금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그러나 예금은 금융자산 수익률의 절반 수준이므로 인플레이션 리스크에 노출될 위험이 높다는 단점이 있다(아시아투데이, 2012. 03. 19).

[그림4] 개인이 선호하는 투자자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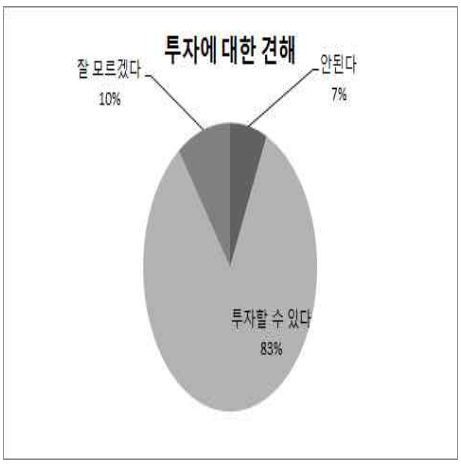
[그림5] 가정이 선호하는 투자자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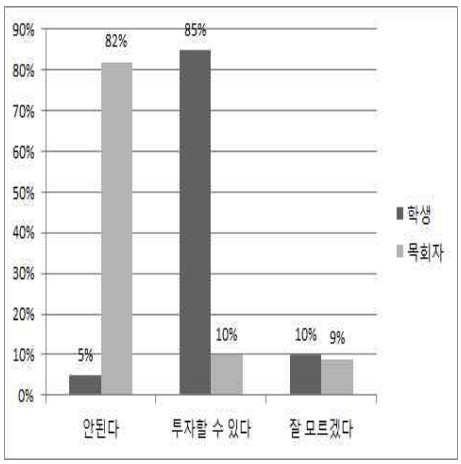
(6) 투자에 대한 견해

‘용돈이나 아르바이트 수입을 주식, 펀드 등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83%(132명)의 학생이 ‘현대 자본주의 경제의 주요한 부분이고 목적과 방법이 정당하다면 투자할 수 있다’에 응답했고, 10%(16명)의 학생이 ‘잘 모르겠다’에 응답했으며, ‘주식이나, 펀드는 투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서는 안된다’고 응답한 학생은 7%(11명)로 낮은 선호도를 보였다. 반면 목회자를 대상으로 같은 질문을 했을 때 82%(362명)가 ‘주식이나 펀드, 부동산은 투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에 응답하고, ‘현대 자본주의 경제의 주요한 부분이고 목적과 방법이 정당하다면 투자할 수 있다’고 응답한 수가 10%(46명)인 것으로 나타나, [그림7]과 같이 목회자와 대학생들은 정반대의 투자관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목회와 신학, 2012).

[그림6] 주식투자에 대한 견해



[그림7] 목회자의 견해와 비교



(7) 투자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

인구통계학적 변수 중 실제 주식투자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밝혀내기 위해 실제 투자경험과 ‘성별, 국적, 전공, 장래목표, 가족 중 금융권에 종사하는 사람이 있는가’와 각각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모의투자 경험과 ‘성별, 국적, 전공, 장래목표, 가족 중 금융권에 종사하는 사람이 있는가’와 각각 교차분석 한 결과도 마찬가지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없었다.

목표수익률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5% 유의수준에서 가정의 월 평균소득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실제 주식투자수익률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용돈의 규모로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모의투자 목표수익률에 영향을 주는 변수 역시 5% 유의수준에서 가정의 월 평균소득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의투자 실제수익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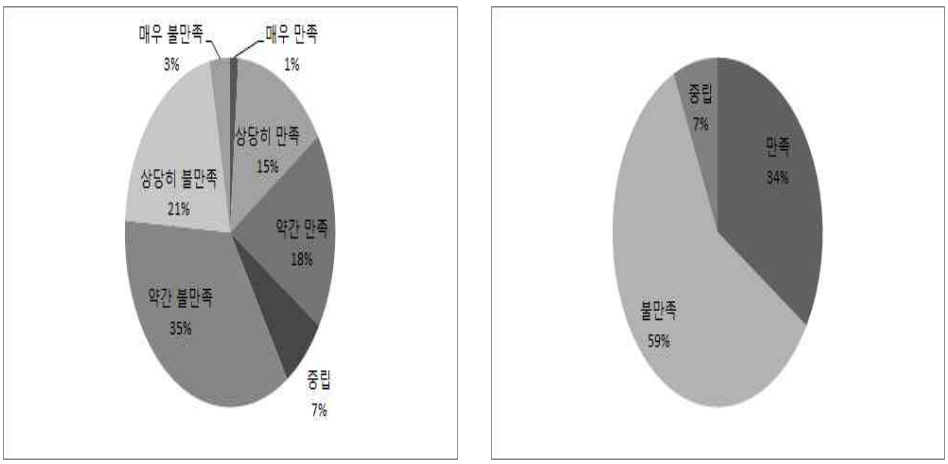
	목표 수익률 (실전)	투자 수익률 (실전)	목표수익률(모의)	투자 수익률 (모의)	가정 월 평균소득	용돈수입	아르바이트 수입
목표 수익률 (실전)	1.000						
투자수익률(실전)	0.240	1.000					
목표수익률(모의)	0.845**	0.304	1.000				
투자 수익률 (모의)	0.538**	0.415*	0.516**	1.000			
가정 월 평균소득	0.272*	0.155	0.214*	0.116	1.000		
용돈수입	0.010	0.304*	0.076	0.186	0.325**	1.000	
아르바이트 수입	0.408	0.143	-0.124	0.051	0.231	0.273	1.000

*P<0.05, **P<0.01

2. 대학생들의 행복지수

Diener, Emmons, Larsen & Griffin의 '삶의 만족도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한 대학생들의 행복지수는 매우 만족함 2명(1.2%), 상당히 만족함 23명(14.4%), 약간 만족함 29명(18.2%), 중립임 11명(6%), 약간 불만족함 56명(35.2%), 상당히 불만족함 33명(20%), 매우 불만족함 5명(3.1%)으로 나타났다. 만족과 불만족 두 가지 척도로 나누어 보았을 때도 삶에 불만족 하는 학생이 94명(59%)으로 만족하는 학생 54명(33%) 보다 약 두 배 가량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8] 대학생들의 행복지수



(1) 행복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

인구통계학적 변수 중에서 성별에 따른 행복지수에 차이가 있는 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t-검정을 실시한 결과, 5% 유의수준에서 성별에 따른 행복지수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검정 및 집단변수		평균	표준편차	t값	p
성별	남	19.0112	5.59321	-0.048	0.962
	여	19.0571	6.47153		

국적에 따른 행복지수에 차이가 있는 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t-검정을 실시한 결과, 5% 유의수준에서 국적에 따른 행복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외국인 학생의 행복지수 평균값은 21점으로 '약간 만족함'에 속했고, 한국인 학생의 행복지수 평균값은 18.84로 '약간 불만족함'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나 외국인 학생이 조금 더 행복한 것으로 보인다.

검정 및 집단변수		평균	표준편차	t값	p
국적	한국	18.8414	5.72964	-1.293	0.198
	기타	21	8.11456		

박준성, 정태연(2011)에 따르면 종교가 있는 사람이 무교인 사람보다 삶의 의미를 더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종교가 있는 경우에는 개신교인, 천주교인, 불교인 순으로 더 행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도 종교의 유무에 따라 행복지수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t-검정을 실시했지만, 5% 유의수준에서 종교의 유무에 따른 행복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정 및 집단변수		평균	표준편차	t값	p
종교 유무	유	19.0862	5.86780	0.0878	0.931
	무	19.0000	6.06630		

그리고 종교인 간에 행복지수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5% 유의수준에서 종교인 간 행복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Scheffe를 이용한 사후검정 결과에서도, 5% 유의수준에서 종교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분		행복지수	F	P	Scheffe		
					종교	평균차이	p
종교	기독교	19.5455 (5.52679)	0.1333	0.940	천주교	-0.01010	1.000
					불교	0.98990	0.955
					기타	0.54545	0.985
	천주교	19.5556 (6.94822)			기독교	0.01010	1.000
					불교	1.00000	0.980
					기타	0.55556	0.995
	불교	18.5556 (5.95065)			기독교	-0.98990	0.955
					천주교	-1.00000	-0.980
					기타	-0.44444	0.990
	기타	19.0000 (6.06630)			기독교	-0.54545	0.985
					천주교	-0.55556	0.995
					불교	0.44444	0.990

구재선, 서은국(2011)에 따르면 객관적 소득이 높은 가정의 구성원들은 삶의 만족과 긍정적 정서 수준이 높게 나타나, 가정의 월 소득은 삶의 만족 및 긍정적 정서와 유의한 관련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도 가정의 월 평균 소득, 개인의 용돈 규모, 개인의 아르바이트 수입 규모와 행복지수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5% 유의수준에서 개인의 용돈 규모와 행복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1% 유의수준에서 가정의 월 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개인의 용돈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가정의 월 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행복지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행복지수	가정월평균소득	용돈규모	아르바이트수입
행복지수	1.00			
가정월평균소득	0.149	1.00		
용돈규모	0.184*	0.325**	1.00	
아르바이트수입	0.016	0.231	0.273	1.00

*P<0.05, **P<0.01

VI. 요약과 결론

본 연구는 성경과 기존연구를 통해 성경적 투자관을 알아보고, 성경의 행복관과 긍정심리학의 행복관을 정리하고자 하였다. 또한 설문조사를 통해 대학생들의 주식투자에 대한 태도를 분석하고, 대학생들의 행복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혀내고자 하였다.

성경의 투자관은 달란트 비유와 열 므나 비유에 나타난 청지기의 태도를 통해 알 수 있다. 성경은 우

리에게 주어진 자원을 낭비, 허비하거나 사장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투자하기를 원한다.

성경적 행복관은 다윗의 행복론, 예수 그리스도의 행복론, 바울의 행복론이 있다. 다윗의 행복론은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은 의인에게만 행복이 있다고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행복론에 의하면 심령이 가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은 자가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다.

긍정심리학은 행복을 구체적인 개념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쾌락주의적 입장은 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만족스럽게 느끼는 주관적인 상태를 행복이라고 말하고, 자기실현적 입장에서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 가능성을 충분히 발현하여 자신의 인생의 중요한 부분에서 의미 있는 삶을 구현하는 것을 행복이라고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투자에 대한 태도와 행복지수를 측정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이용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 159명의 학생 중 85%의 학생이 실제 주식투자 혹은 모의투자 경험이 있으며, 가장 선호하는 투자자산은 주식(47%), 예금(23%), 펀드(18%), 실물자산(5%), 보험(1.8%), 기타(1.8%) 순으로 나타났다. 투자에 대한 견해 역시 83%가 '현대 자본주의 경제의 주요한 부분이고 목적과 방법이 정당하다면 투자할 수 있다'에 응답해 주식투자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정의 월 평균소득은 실제 주식투자의 목표수익률과 모의투자 목표수익률과 각각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제 주식투자수익률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용돈의 규모로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대학생들의 행복지수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삶에 불만족하는 학생이 59%로 만족하는 학생(33%)보다 약 두 배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행복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용돈의 규모로,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을 분석한 결과, 대학생들은 주식투자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는 물질자원을 낭비, 허비하거나 사장하지 않고 투자하라는 성경의 태도와 일치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목회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현재 목회자들은 주식투자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성경을 가르치는 목회자가 성경의 가르침에 부합하지 않고, 오히려 대학생들이 더 바른 성경적 투자관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종교에 따른 행복지수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으나 기독교는 천주교에 이어 두 번째로 행복한 종교로 나타났다. 성경적 행복론에 의거하여 행복에 대한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본 논문의 기여는 실제 투자론 수업을 듣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주식투자에 대한 태도를 알아본 것과 대학생들의 행복지수를 분석한 데 있다. 대학생들의 행복에 대해서 분석한 강민완, 김선아, 심제은(2010)의 논문이 있으나, 이는 '대학생활의 적응이 학생의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논문이다.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며, 이 요인 중 하나는 종교인 것으로 나타났기에,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종교를 가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행복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몇 가지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첫째, 대표적인 한계는 표본의 제약이다. 지역적으로 분산되지 않은 159개의 표본은 모집단을 대표하기에 부족하며, 분석상의 제약을 가져온다. 둘째, 투자론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기본적으로 주식투자에 대해 긍정적

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표본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기에 모집단의 특성을 대표하기에는 부족할 수 있다. 셋째, 종교를 가진 학생의 수가 기타(무교)인 학생에 비해 두 배 가량 적기에 종교에 따른 투자태도나 행복지수를 분석하여 일반화하기는 힘들다. 넷째, 행복감의 기준은 개인에 따라 다르고, 마음상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행복지수를 분석하여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향후 연구에서 이에 대한 부분을 보완하여 추가의 심층적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참고문헌

강민완・김선아・심제은 (2012). “대학 경호학과 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이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 10(12). 318-327.

강성준 (2009). “금융상품 투자에 대한 성경적이해.” 『로고스경영연구』. 7(2). 119-136.

구재선・ 서은국 (2011). “한국인, 누가 언제 행복한가?.” 『한국심리학회』. 25(2).146-166.

권석만 (2011). 『긍정심리학』 학지사.

김성숙., “성경적인 개인재무관리를 위한 경제교육내용 개발.” 『신앙과 학문』. 14(1). 9-54.

박정윤 (2008). 『성경으로 배우는 행복한 증권투자』. 열린시선.

_____ (2009a). “솔로몬의 행복한 부자론.” 『로고스경영연구』. 7(2). 137-154.

_____ (2009b). “‘성경으로 배우는 증권투자’에 대한 인터넷 강의과목 개발사례.” 『기독교교육정보』. 23. 261-286.

_____ (2011). 『성경으로 배우는 행복한 부자학』. 열린시선..

_____ (2012). “성경적 투자원리와 교회의 적용.” 『로고스경영학회』. 10(1). 21-38.

박준석,・정태연. (2011). “한국인의 종교성이 행복, 봉사활동 그리고 삶의 의미에 미치는 영향.” 『종교연구』. 64. 109-135.

신현범・김효정 (2011). “주식모의투자의 투자심리 효과와 경제교육 효과.” 『경제교육연구』. 18(2). 129-151.

이준영・정지영 (2011). “남성과 여성의 투자위험 감수성향 차이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 49(10).

최말옥 (2011). “남성과 여성의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 비교.” 『사회과학연구』. 27(2). 19-40.

Diener, E. (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193. 542-575.

Diener, E. (1994). *Assessing subjective well-being: Progress and opportunities.* Social Indicators Research. 31. 103-157.

Kraut,. R. (1979). "two Conception of happiness. Philosophical of Happiness," *Philosophical Review* 87.0.

Paul, Stevens (1997). *The Complete Book of Commentary.* InterVarsity Press. 540-545.

Seligman, M.E.P. (2002), *Authenetic happiness.* New York: Free Press.

Rtff, C.D.,&Singer, B, (1989). "The contours of positive human health," *Psychological Inquiry* 9 (1).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12281042072&code=900312. (검색일 2011. 12. 28)

http://www.etnews.com/news/opinion/2561034_1545.html. (검색일 2012.02.22)

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612755. (검색일 2012. 03.19)

http://polinews.co.kr/news/newsview.html?no=145101. (검색일 2012. 04. 19)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3&aid=0004376437. (검색일 2012. 03. 07)
http://www.wowtv.co.kr/newscenter/news/view.asp?bcode=T30001000&artid=A201203070203. (2012. 03. 07)